

결손가정에서 성장한 학생선수들의 성장과정, 역경극복 및 사회적응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신승휘¹, 김승용^{2*}

¹한양대학교 스포츠과학과 석사, ²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조교수

A Narrative Inquiry Regarding the Growth, Overcoming Hardship, and Social Adjustment of Student Athletes from Broken Families

Song-Hwi Shin¹, Seung-Yong Kim^{2*}

¹Master, Dept. of Sport Science, Hanyang University

²Assistant Professor, Major in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ong-A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불완전한 가족 구성원의 형태로서 결손가정인 동시에 학업과 운동을 함께 병행하는 학생선수들의 '역경극복 과정'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야기하고 분석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 방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인관계의 개선 및 확대와 관련하여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신 있게 행동하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화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즐거움을 통한 긍정적 정서형성과 관련하여 역경 상황의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본인이 적극적인 탐색과 함께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였다. 셋째, 문제해결력의 향상과 관련하여 결손으로 인한 역경 상황에서 자신에게 가장 맞는 효과적인 방법의 발견과 미래의 역경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해결에 대한 능력이 향상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주제어 : 결손가정, 학생선수, 성장과정, 역경극복, 사회적응

Abstract The objectiv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engage in an in-depth discussion and analysis about the process of overcoming hardships in students that play varsity sports as student athletes and who grew up under incomplete family structures, To achieve this end, the current study conducts a narrative inquiry into the subjects, which found the following: First, in terms of improvement and expans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 student athletes were able to change their personalities to be more confident and active in their daily routines. Second, in forming positive emotions through playing sports, the student athletes were able to actively search for ways to overcome difficult situations and self-regulated their emotions. Third, in relation to improvement of problem-solving skills, the student athletes were able to find the most effective ways to overcome hardships caused by their broken family situations, in addition to exhibiting advanced problem-solving skills that enabled them to find courses that are most adequate for solving future problems.

Key Words : Broken Family, Student Athletes, Regarding the Growth, Overcoming Hardship, Social Adjustment

본 논문은 신승휘의 석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수정, 보완 및 재구성하여 작성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Seung-Yong Kim(dragonkim@dau.ac.kr)

Received February 28, 2019

Accepted May 20, 2019

Revised March 28, 2019

Published May 28, 2019

1. 서론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직은 가정이다. 가정 속에서는 기본적인 생활 및 행동이 형성되며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를 통해 대인관계의 능력과 사회성이 발달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하여 가정의 형태 및 역할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가족 구성원이 모두 함께 살아가는 일반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이 불완전한 형태로 살아가는 결손 가정으로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1]에 따르면 2005년 137만 6천명이었던 결손 가정의 수는 2017년 212만 7천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결손가정의 비율은 2005년에 전체가구 대비 8.6%였지만 2017년에는 10.9%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즉, 가정의 형태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한 결손가정의 수와 비율이 점차 증가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결손가정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형태적인 결손가정과 기능적인 결손가정으로 구분하고 있다[2]. 형태적인 부분에서의 결손가정이란 부모가 자녀와 함께 동거하지 못하는 결손가정으로서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별거, 장기부재, 수형, 및 유기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부(父)나 모(母) 둘 중 한쪽의 부재가 있는 가정을 말한다[3]. 기능적인 부분에서의 결손가정이란 가족 구성원의 형태는 정상적이지만 부모간의 불화나, 방임, 갈등, 및 가족의 부도덕 등의 이유로 가족 간의 유대가 단절되며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적절하게 수행되지 못하여 자녀들에 대한 정상적인 양육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한다[4].

결손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결손을 결정할 부부들이겠지만, 부모의 결손을 겪는 자녀들도 부모들 못지않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결손가정 자녀들은 부모의 부재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성격의 장애가 나타나게 되며[5], 부모의 슬픔과 고독감으로 인하여 결손가정 자녀들은 도덕성 및 낮은 자아인식 등의 부작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6]. 또한, 성인이 되어서도 이들은 여전히 불안이나 낮은 성취, 자기 비하 및 분노와 같은 부작용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7]. 이렇듯 결손이라는 환경적변화로 인하여 결손가정 자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성인기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결손가정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능적인 결손가정 초등학생의 진로성숙 및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관련 연구나[8], 또는 경험표집법을 이

용하여 결손가정 청소년의 여가경험에 대한 연구[9]가 있다. 그리고 한 부모 가족 대학생 자녀의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한 연구를 통해 한 부모 가족이나 양부모가족의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 수준을 살펴본 연구 등이 발견되어지고 있다[10]. 이처럼, 결손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결손가정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반인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운동선수들에 대한 결손가정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운동선수들이 선수생활을 지속하면서 다양한 역경을 경험하는 동시에 결손까지 경험하게 된다면 일반인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운동선수는 훈련 및 경기 중에 발생하는 부상, 운동에 대한 슬럼프, 개인 시간의 제약 등 일반인과 전혀 다른 역경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11]. 특히, 학생선수는 선수로서의 운동의무와 학생으로서의 학업의무 사이에서 혼돈을 경험하고 있으며[12], 학교체육과 전문체육 사이에서 학생선수의 정체성이 애매하게 위치해 있음으로 일반학생들에 비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13]. 또한, 일반학생과 구별된 문화특성을 지닌 학생선수는 학교운동부 내에서 집단주의 및 집단문화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14]. 이러한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선후배와의 부정적 교우관계, 무리한 연습량, 학업퇴보 등의 문제로 선수생활 중 다양한 역경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심은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손이라는 경험에서 나타나는 학생선수들에 대한 어려움을 '역경'으로 표현하였다. 즉, 역경이란 자신이 가진 능력에 견주어 극복하기 힘든 상황이나 현실을 말한다[15]. 역경을 큰 재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역경은 오히려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있으며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16]. 어떤 사람은 역경에 좌절하고 무너지지만, 어떤 사람은 본인에게 맞는 역경 극복방법을 사용하여 회복해 나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선수들이 결손으로 인해 발생한 역경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극복하다(overcome)'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봐야한다. 극복하다는 사람이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에 대해 노력하여 좋아지거나 없어지게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의미로는 사람이 어려움을 굴복하지 않고 견디거나 잘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역경이 좋아지거나 없어지는 것도 극복이며, 역경을 견디고 살아가는 것도 극복임을 말해주고 있다. 결국 극복은 마주한 어려움

들을 잘 견뎌내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지속적인 의지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15]. 따라서 '역경 극복과정'은 자신이 극복하기 힘든 상황이나 현실을 잘 견뎌내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스스로 끊임 없이 노력하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결손가정 자녀들이 결손으로 인한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슬픔과 아쉬움이 남아 있지만 자기수용, 문제해결력의 향상, 강한 마인드, 삶의 가치 증대, 가치관에 대한 변화 등 긍정적인 성장과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였다[17-19].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결손가정 학생선수들이 결손으로부터 어떠한 역경을 경험하고, 이러한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긍정적인 성장과 변화가 나타나는지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학생선수의 운동을 지도하는 스포츠지도자 또는 그들의 교육을 지도하는 학부모들이 결손가정 학생선수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과거 학생선수 시절 결손을 경험한 연구 참여자들의 '역경 극복과정'을 전·중·후로 세분화하여 이들의 경험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단순하게 이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역경을 극복했는지에만 치중하지 않고 이들의 내부자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결손가정 학생선수들이 겪는 감정 및 정서를 통해 성장과정, 역경극복, 그리고 사회적응까지 살펴보고 이야기로 드러내는 것을 본 연구에서는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내러티브 연구방법

이 연구는 과거 결손을 경험한 학생선수들의 역경 극복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였다. 불완전한 가족 구성원의 형태로 살아가는 동시에 학업과 운동을 함께 병행하는 학생선수들은 일반가정 학생선수보다 더 많은 역경을 경험하기에 이들에 대한 관심은 매우 필요한 시

기에 놓여있다. 따라서 결손가정 학생선수들의 다양한 '역경 극복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방법을 활용하였다. 내러티브 탐구 방법은 '이야기하기(Story telling)'와 '다시 이야기하기(Retelling story)'를 통하여 인간의 경험들에 대한 의미를 만드는 것이며, 이러한 경험들을 해석하고 재해석하는 질적 연구 방법이다[20]. 본 연구에서는 결손가정 학생선수들의 삶을 이해하고자 이들의 '역경 극복과정'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석하고 재해석하여 이들의 이야기 속 교육적 의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러티브 탐구가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 볼 수 있다.

2.1 연구 참여자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간의 오고가는 많은 대화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관련된 문서들을 수집 및 분석하여 연구 참여자에 대한 선정기준을 정하였으며, 예비(Pilot)면담을 통하여 연구의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참여자들은 배제하였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선수의 삶을 보냈으며, 과거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한 자로 선정하였다. 둘째, 과거 학생선수로서의 활동 시기에 이혼이나 별거, 장기부재 등의 여러 사유로 부모 중 한 분 이상 영구적으로 부재하거나 동거하지 않는 형태적인 결손가정의 삶을 경험한 자로 선정하였다. 셋째, 라포(Rapport) 형성이 가능하거나 또는 형성되어 있는 자로 선정하였다. 넷째, 본인 삶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가진 자로서 과거나 현재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미래의 계획 및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목적과 진행과정을 충분히 이해하며 연구 참여에도 동의한 사람으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 참여자에 대한 선정방법을 통해 선정된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은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 name | gender | age | type of broken family structure | time of family structure change | sporting event | length of athletic experience |
|------|--------|-----|---------------------------------|---------------------------------|----------------|-------------------------------|
| Lee | female | 26 | separation | age 14 | tennis | 10 years |
| Ko | male | 30 | divorce | age 15 | golf | 17 years |
| Kim | female | 27 | separation | age 14 | kendo | 10 years |
| Cho | male | 27 | long-term parental absence | age 17 | taekwondo | 7 years |

2.2 자료 수집

이 연구는 과거 학생선수 시절 결손을 경험한 성인들 중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4명을 선정 하였다. 이들은 과거 학생선수 시절 검도, 골프, 태권도, 테니스 등 서로 다른 운동종목을 경험하는 동시에 결손이라는 같은 역경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결손가정 학생선수들의 역경극복 전·역경극복 중·역경극복 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이를 위하여 심층면담, 일기, 훈련일지, 기록카드, e-mail, 관련 문서 등의 현장 텍스트를 수집하였다. 현장 텍스트 중 가장 중요한 심층면담은 15회(3회: 'Lee'/4회: 'Ko, Kim, Cho')를 실시하였으며, 면담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였다.

과거에 연구 참여자가 사용했거나 보관된 일기, 훈련일지, 그리고 기록카드 등 개인기록물을 통해 심층면담에 필요한 과거 경험했던 역경극복 이야기를 파악하고 연결하기 위한 자료로 수집하였다. 즉, 주 자료원인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 면담 속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할 수 있도록 '기억상자(memory box)'의 역할로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내재적 신념과 정서적 의미를 이해하고자 중요정보제공자(key informant)를 두었으며, 틈틈이 구성원 간 검토(member check)를 통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하고 느꼈던 기록정보 속 내용의 의미들이 왜곡되지 않고 정확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3 자료 분석

질적 연구는 굉장히 많은 양의 원자료(raw data)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또한, 해석하는지에 따라 자료 분석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달라진다[21]. 즉, 기계적인 과정에 의해 수집된 '현장 텍스트'들은 아무런 연구적 의미와 가치를 지니기 힘들기 때문에 '현장 텍스트'를 '연구 텍스트'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과 구상이 필요하다[22]. 따라서 본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들을 연구의 목적에 맞게, 그리고 내용별로 해석하기 위하여 Spradley [22]가 제시한 문화 분석방법 중 영역분석(domain analysis) 방법과 분류분석(taxonomic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는 먼저, 결손가정 학생선수들의 역경 극복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읽어나갔다. 그리고 이들의 내러티브 속 주제를 찾아 서로의 내러티브를 대조하였으며 교육적 의미성분을 분류하여 연구 텍스트로 구성하였다.

2.4 연구의 진실성 및 연구 윤리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에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해석이 투영되기에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생각과 관점 등이 연구자의 해석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매우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의 분석에만 의존하지 않고 연구 참여자의 검증과정을 수시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질적 연구의 경험을 가진 스포츠교육학 전공 교수 1인과 체육학 박사2인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검토를 통해 진실성을 확보하였다.

3. 이야기하기

3.1 'Lee'의 내러티브

'Lee'는 테니스 선수출신이며 현재 외국 기업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테니스지도자이다. 그녀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테니스를 시작하게 되었고 중학교 1학년 때 본격적으로 선수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그녀는 선수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의 불화로 갑자기 어머니가 집을 떠나게 되면서 결손을 경험하게 되었다.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가게 된 그녀는 결손으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운동생활에서 역경을 마주하게 된다.

3.1.1 역경극복 전

'Lee'의 부모는 그녀에게 별거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당혹감을 느꼈지만 부모의 별거가 현실로 조금씩 다가오면서 우울함까지 경험하게 된다. 또한, 친척가족과의 비교를 통해 일반 가정에 대한 부러움을 느꼈으며, 본인가족이 다시 일반가정처럼 화목하게 지낼 수 없다는 걸 인지하여 깊은 슬픔까지 경험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갑자기 엄마가 집을 나가서 당황스러웠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니깐 우울해졌어. 그래서 이모네 동생들이랑 놀려고 가면 이모네는 너무 행복해 보여서 너무 부러웠어. 나는 매일 집에서 혼자 노는 거랑 야빠가 일하러 가고 없으면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서럽고 이 상황이 너무 슬프더라." -심층면담 #-

결손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당혹, 우울, 부러움, 슬픔 등의 부정적 감정을 느낀 그녀는 운동생활에서도 역경을 경험하게 된다. 결손을 경험하기 전 그녀의 어머니는 운동부 학부모회의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왔다. 하지만 부모님이 따로 살게 되다보니 그녀의 어머니 또한 사회에 진출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양부모 모두 일을 하게 되어 운동부 학부모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학부모 회의를 할 때마다 감독님과 운동부 친구들에게 부모님의 불참에 대해 매년 말해야 되는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다.

“친구들은 부모님들 모두 오는데 나는 상황을 설명하는 거 자체가 힘들었어. (중략) 그런데 애들이 왜 못 오시냐고 또 물어보는 것도 싫었어. 상황을 얘기 못하고 ‘엄마가 바빠서 못 와’, ‘아빠는 이번엔 바빠서 못 와’ 이런 식으로 말했어. 그때 당시에는 이혼이나 별거하는 가족들이 별로 없어서 이런 상황을 설명해줘야 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 -심충면담 ㄱ-

3.1.2 역경극복 중

그녀는 결손으로 인하여 경험한 부정적 감정을 어떻게 해야 긍정적 감정이 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그러한 결과, 음악 듣기나 미드 및 연예인 동영상 시청하기를 찾아내 혼자만의 시간을 활용하여 본인의 감정을 컨트롤하고자 노력하였다.

“어렸을 때부터 음악 듣는 걸 좋아해서 혼자 있는 시간에는 노래를 들었어. 그리고 훈련하고 남는 시간에는 그때 유행했던 일본 드라마나 한국 드라마를 혼자 시청하면서 기분을 좋게 했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동영상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어.” -심충면담 ㄱ-

그리고 같은 결손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동기와 그의 아버지를 통해 운동부 학부모회의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씩 견어내게 되었다. 운동부 생활에서 그녀의 동기는 서로 의지하는 친구가 되었으며, 동기의 아버지는 그녀의 부모가 시합장 및 학부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마다 호의적인 말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나랑 같은 상황인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아빠가 나한테 엄청 잘해주셨어. (중략) ‘기죽지 말라고 너희들이 왜 기죽고 다니냐?’ 하면서 용기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 우리 아빠가 시합장이나 학교에 못 왔을 때 친구아빠가

다른 친구들 보란 듯이 매번 간식을 챙겨주셨어. 그러면서 친구랑 서로 힘이 되고 의지하게 되었지.” -심충면담 ㄱ-

3.1.3 역경극복 후

결손으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 감정들을 긍정적 감정으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한 그녀는 본인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의 방법을 통해 얻은 긍정적인 정서는 다른 사람들과 더욱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게 만들었고, 새로운 사고나 행동을 생성하게 되었다.

“내 마인드 자체가 강해졌다고 느낄 수 있었어. 결손이 있어도 잘 살 수 있다는 점을 나를 통해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 친구들의 환경은 친구들의 환경이고 내 환경은 내 환경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다보니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 -심충면담 ㄱ-

그리고 그녀를 진심으로 도와주는 동기와 그의 아버지는 학부모회의에 대한 그녀의 두려움을 줄여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별거를 솔직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해주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자신 있게 행동하게 되었고 외적상황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나는 그 친구랑 아빠 때문에 이전 모든 사람들에게 부모님이 별거하고 있다고 먼저 말해. 처음에는 반응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당황하지 않고 뚜렷하게 말했더니 오히려 먼저 잘 챙겨주고 해서 좋았어. 차라리 먼저 말하는 게 편하다고 느껴.” -심충면담 ㄱ-

3.2 ‘Ko’의 내러티브

현재 ‘Ko’는 투어대회를 뛰고 있는 골프선수로서 우승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의 권유로 골프를 시작하게 되었고, 중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게 된다. 그는 운동부 선·후배, 동기, 프로님에게 부모님의 이혼을 숨겨왔고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썼다. 하지만 프로님의 실수로 부모님의 이혼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어 자신을 측은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다양한 역경을 경험하게 된다.

3.2.1 역경극복 전

'Ko'는 아버지와 누나가 떠나는 과정 속에서 부모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그는 부모님의 이혼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결혼상황에 대한 답답함과 자신에 대한 분노를 경험하게 된다.

"누나는 부모님이랑 얘기를 많이 했지만 나는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서 두 분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 '부모님 화해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어. 하지만 이 부분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느끼면서 답답하고 화가 났지." -심층면담 ㄱ-

그리고 그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발생한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운동에 집중하기 힘들어졌고, 집중력하락은 경기력까지 영향을 미쳐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골프가 싫어진 그는 훈련거부로 인하여 아버지와의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 이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한 그는 다리부상의 역경을 경험하게 되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조금씩 집안 걱정을 하면서부터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지더라. (중략) 크게 슬럼프가 와서 운동하기가 싫어졌어. 골프는 심리운동인데 마음이 불안정하니깐 당연히 집중력이랑 경기력도 떨어지고 자신감까지 떨어지더라. (중략) 운동에 집중이 너무 안되니깐 가기 싫다고 아빠한테 말하고 엄청 싸운 일도 있었는데 그 때 너무 화가 나서 아빠 앞에 있는 골프채를 들고 정강이로 박살내 버렸어." -심층면담 ㄱ-

3.2.2 역경극복 중

결혼으로 인해 답답함과 분노를 경험한 그는 어떻게 해야 풀릴지 계속 고민했다. 이러한 고민 끝에 여자 친구에게 본인이 처한 상황과 힘든 점들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그보다 결혼을 먼저 경험하고 있었던 여자 친구는 자신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고 보답아줄 것 같은 생각에 그는 끊임없이 그녀에게 대화를 요청했다. 그 결과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었고 부정적인 스트레스와 정서를 줄이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사실 여자 친구한테 많이 의지하고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 이 친구랑 힘들었던 점이나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됐어. 여자 친구네 부모님도 이혼하셔서 공감대가 많았어. 여자 친구도 힘들면 나한테 다 이야기해주는 성격이라 서로 의지하는 유일한 사

람이었지. 여자 친구가 없었으면 얘기할 곳조차 없어서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했을 거 같아." -심층면담 ㄱ-

그리고 여자 친구의 응원 덕분에 그는 운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슬럼프를 경험한 그는 훈련거부로 인해 스윙이 망가져 매우 힘들어했다. 예전의 경기력을 되찾기 위해 그는 많은 고민을 했다. 그 결과, 새벽운동의 계획과 친구들과의 부딪치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 운동기량을 향상시키려고 매우 노력하였다.

"친구들보다 더 열심히 공 쳤던 것 같아. 친구들이 10~11시쯤 골프장에 도착하는데 나는 새벽6시에 나와서 먼저 운동하고 점심에 집에 갔어. 친구들은 나를 보고 2~3시간 운동하고 집에 가는 줄 알겠지만 새벽부터 운동했기 때문에 친구들과 같은 운동량을 할 수 있었지." -심층면담 ㄱ-

3.2.3 역경극복 후

그는 여자 친구에게 끊임없이 상담을 해서 운동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운동을 할 때마다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계속 나쁜 생각만 하면 한없이 우울해지고 운동에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괜찮아. 잘 할 수 있어. 다 좋아질 거야.'라고 계속 생각했어." -심층면담 ㄱ-

또한, 새벽운동을 계속한 그는 본래의 스윙을 조금씩 되찾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스포츠자신감(sport-confidence)은 자신감의 개념과 비슷하지만 스포츠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경험하게 되는 인지적인 개념으로서 스포츠의 수행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24]. 그는 이러한 스포츠자신감을 통해 프로선발전에 도전하게 되었고 어린나이에 프로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일단 운동에만 집중하다보니 고등학교 때 세미프로를 딸 수 있었어. 그 후 대학 때 바로 프로를 따게 됐지. 당시에는 따기가 어려웠는데 내가 노력한 덕분에 어린나이에 프로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 때 너무 좋아하던 아빠의 웃는 얼굴이 계속 생각나서 지금 까지도 골프를 못 놓고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지." -심층면담 ㄱ-

3.3 'Kim'의 내러티브

'Kim'은 대학졸업 후 역경 극복과정 중 만난 연인과 결혼함으로써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어린신부이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친언니가 다니던 검도도장에 놀러 갔다가 검도를 배우게 된 그녀는 뛰어난 재능으로 초등부 전국검도대회에서 준우승하였다. 그녀의 재능을 발견한 도장 사범님은 검도부가 있는 중학교에 그녀를 추천하였고 그렇게 그녀는 학생선수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하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의 잦은 외도로 인하여 부모님이 별거하게 되었고, 그녀의 친언니는 외국으로 유학가게 되면서 그녀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결손을 경험한 그녀는 일상생활과 운동생활에서 많은 역경을 경험하게 된다.

3.3.1 역경극복 전

과민성, 신경증, 불안, 불만 등과 같은 부모의 정서문제가 부적응 등은 자녀의 정서에도 직접적인 자극과 위협을 주게 된다. 그리고 습관적인 스트레스와 분노에 따른 부모님의 적절치 못한 표출은 자녀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게 된다[23]. 'Kim'의 어머니도 결손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가정폭력이라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표출하였다. 따라서 어머니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그녀는 어머니로부터 큰 상처를 받게 되었다.

"중학교 1학년 때 아빠가 완전히 안 들어오는 걸 알았어. 그 때 엄마한테 많이 맞았는데 그 이유로 언니가 엄마 옆에서는 공부 안된다고 유학 가고 아빠도 바람피워서 따로 사니깐 엄마가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한테 풀었던 것 같아." -심충면담 ㄱ-

그녀는 일상생활에서 어머니의 가정폭력을 경험한 역경뿐만 아니라 운동부지도자의 차별이라는 운동생활 속 역경도 경험하게 되었다. 아버지의 부재로 그녀의 어머니는 일을 해야 했고 점차 그녀가 다니는 학교 운동부에 관심을 두기 어려워졌다. 그녀와 같이 운동하는 동기나 선배의 부모는 학교 운동부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촌지관행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관행에 익숙해진 운동부지도자는 그녀를 차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도자의 차별이 부모의 결손 때문에 나타났다고 생각했으며, 지도자에게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면서 운동을 중도 포기하게 되는 역경까지 경험하게 되었다.

"우리 부모님은 못 오고 동기들 부모님들은 오셔서 코치님 챙겨주고 하니깐 코치님이 동기들만 너무 예뻐 했

어. (중략) 코치님이 입상하면 면수건을 선물로 준다고 했었는데 그 때 나만 입상해버렸어. 코치님은 나한테 안 주고 싶었는지 면수건을 내 얼굴에 던져버리더라. 엄마가 와서 좀 챙겨주고 하면 적어도 코치님이 예뻐했을 텐데..." -심충면담 ㄱ-

3.3.2 역경극복 중

그녀는 일상생활 속에서 역경을 해결하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이를 위해 어머니께 같이 댄스스포츠를 배우자고 의견을 제시했고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어머니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난 엄마한테 댄스스포츠를 같이 배우고 싶다고 말했어. 검도는 선수로서 하루 종일 훈련하는 거라서 재미없고 힘들었는데 댄스스포츠를 취미로 배우니깐 나는 그 시간만 기다려지고 너무 좋더라. (중략) 신나는 음악과 함께 춤을 배우면서 서로 웃는 일이 많아지고 엄마의 기분 전환에 매우 도움이 된 것 같아." -심충면담 ㄱ-

하지만 힘들어하는 어머니의 상황을 알고 나니 자신의 어려움을 말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 주변에는 조언을 구하거나 마땅히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심리 상담을 검색해보고 직접 찾아갔다. 결손으로 인한 역경을 경험하고 있음을 상담선생님께 말하고 의지했으며 상담선생님의 도움덕분에 운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동기를 부여받게 되었다.

"선생님이 검도도 잘 모르실텐데 나를 위해서 검도로 갈 수 있는 학교까지 찾아서 얘기해주니깐 너무 감동이었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생겼고 무언가 목표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 선생님을 만난 게 나의 인생의 전환 포인트야." -심충면담 ㄱ-

3.3.3 역경극복 후

그녀의 어머니는 결손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그녀에게 가정폭력이라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표출하였다. 이러한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마다 그녀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손상시켜왔다. 하지만 어머니와 함께 댄스스포츠를 배우면서 어머니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고 상담선생님의 도움으로 생활에 안정을 찾아가면서부터 자해행동이 사라지는 변화를 경험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자해를 안 하게 된 거지. 너한테도 말했듯이 엄마가 때릴 때마다 방에서 자해를 정말 많이 했어. 다시 검도를 시작하고 집중하고 스트레스를 풀다보니 자해는 아예 안하게 된 거 같아. 그리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상담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 -심층면담 ㄱ-

또한, 그녀는 코치에게 차별을 느끼고 이후 운동을 중도 포기하는 역경까지 경험하게 되었지만 상담선생님의 도움으로 코치와의 관계가 천천히 회복되었다. 좀 더 나아가 코치와의 훈련시간을 갖게 되었고, 이 훈련이 빛을 발휘해 대학입학에 매우 중요한 경기에서 입상을 많이 하게 되었다. 결국 그녀와 상담선생님이 약속했던 대학입학의 목표를 이루게 되어 뿌듯함의 감정을 경험했다.

“코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진 않았지만 상담선생님의 도움으로 용기를 얻어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고 조금씩 코치님을 용서하기 시작한 것 같아. 코치님도 엄마가 와서 얘기하니깐 나를 조금씩 봐주기 시작했고 개인연습 이랑 1:1 연습도 하자고 했어. 그 덕분에 경기력도 많이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겨서 고3때 입상을 많이 하게 됐지.” -심층면담 ㄱ-

3.4 'Cho'의 내러티브

'Cho'는 현재 대학을 졸업 한 후 대기업에 취직하여 열심히 살고 있는 사회초년생이다. 그는 유년시절 유치원에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모두 태권도를 배워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게 꾸준히 태권도를 취미로 배운 그는 어머니와 관장님의 권유에 의해 초등학교 6학년년부터 선수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그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동시에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부산으로 일하러 가면서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서울에서 따로 살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가 금방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상황이 어려워져 갔고 장기적으로 아버지가 부재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많은 역경을 경험하게 된다.

3.4.1 역경극복 전

현대의 가정은 아버지가 사망하거나 이혼으로 부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Cho'의 아버지 경우처럼 직업 또는 다양한 기타 이유로 인해 가정에서 아버지가 부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그는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갑작스럽게 떨어져 생활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평소 아버지의

역할을 본인이 맡아서 해야 되는 부담감이 생겼고, 혼자 남은 남자로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과 압박감까지 느끼게 되었다.

“아빠가 부산에 있기 때문에 나 혼자 남자로서 엄마와 여동생을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과 압박감이 있었어. 아빠는 항상 여동생 학원에 맞춰서 집에 데려다줬고 엄마랑 항상 같이 장보러 갔었는데 이런 모습이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아빠를 대신해서 이런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 (중략) 한편으로는 내가 잘 지킬 수 있을까?하는 부담이 생겼어.” -심층면담 ㄱ-

그리고 그는 부모님의 심부름 역할로 인하여 훈련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시간 때문에 정작 훈련시간을 맞출 수 없다보니 운동량은 점점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동기들에 비해 실력이 향상되지 못하는 운동부진의 역경을 경험하게 되었다.

“아빠가 부산에 있어서 전달해야 되는 일들이 많았어. 서류를 갖다드리거나 필요한 물건들을 기차타고 갖다드렸어. (중략) 문제는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심부름 역할을 하는 시간이 운동을 해야 할 시간에 할 때가 많았어. 가까운 거리도 아니기 때문에 부산에 가게 되면 훈련도 못하게 되고 동기들에 비해 당연히 경기력이나 기술면에서 조금씩 뒤처지는 걸 느꼈지. 만약 부모님이 같이 계셨으면 심부름 역할도 안하게 되고 운동에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심층면담 ㄱ-

3.4.2 역경극복 중

그는 일상생활에서 겪은 역할대행의 부담감, 책임감, 압박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이를 위해 그는 어머니에게 외식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함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서로간의 기본적인 사랑과 믿음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함으로써 가족에게 속마음을 내비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가정적인 가족의 모습'을 해보고 싶어서 엄마한테 외식하고 싶다고 많이 얘기했어. 자주 외식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많이 하려고 했지. (중략) 서로의 속마음이나 일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서로 의지하게 된 시간이었어.” -심층면담 ㄱ-

그리고 동기들보다 실력이 떨어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과 열등감을 느끼게 된 그는 대학진학과 연관 지어 입상에 대한 부담까지 나타났었다. 하지만 열등감이나 자괴감, 입상에 대한 두려움은 그의 운동 동기에 영향을 주면서 심부름 역할을 하는 날이면 나머지 운동을 무조건 계획하고 훈련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처음에는 부모님 일 때문에 훈련 빠지는 거라 코치님이 훈련 참석 안 해도 뭐라고 안 해서 크게 신경 안 썼는데 어느 날 시합준비해보니 경기력이나 기술이 동기들에 비해 떨어진 내 자신을 보고 한심하고 자존심 상하더라. 심지어 ‘이러다가 입상 못하면 대학도 못가면 어찌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 그래서 부산에 다녀오는 날이면 무조건 못 채웠던 훈련량 만큼 남아서 운동했어.” -심충면담 中-

3.4.3 역경극복 후

그는 가족과의 외식을 통해 가족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그를 어려워만 했던 여동생은 주말에 함께 데이트도 할 만큼 관계가 좋아졌고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 아버지에게 대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에게 가족과의 외식하기는 단순하게 아버지에게 그리움 및 남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해결하는 것을 해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해주었고, 대화를 통해서도 가족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표현과 대화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어. 지금도 여동생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 그리고 가족의 마음을 조금 헤아릴 수 있었어. (중략) 외식덕분에 나는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고 거기에서 많은 얘기를 한 게 모두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게 된 것 같아.” -심충면담 中-

운동부진이라는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 나머지 운동을 열심히 한 그는 늘어난 훈련량 덕분에 경기력이 좋아졌다. 그래서 전국대회에서는 입상을 하게 되었으며 본인이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에게 나머지 운동은 단순한 차원에서 동기들보다 실력이 떨어져 나타난 자괴감과 열등감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입상과 본인이 원하던 대학까지 진학하게 만들었다.

“남아서 운동을 하다 보니 조금씩 실력이 향상되는 걸 느꼈어. (중략) 자신감도 붙고 경기력도 좋아졌더니 입상도 하게 됐지. 그 덕분에 내가 원하던 대학에도 입학

했어. 대학입학은 훗날 나의 가족을 위한 목표였고 가장 처음으로 이룬 버킷리스트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매우 중요했어. 만약 대학도 안가고 고졸이었으면 내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아빠였을 거야.” -심충면담 中-

4. 다시 이야기하기

4.1 대인관계의 개선 및 확대

부모의 이혼, 장기부재, 별거 등을 경험한 결손가정 학생선수들은 양쪽 부모입과의 상호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상대적인 열등감이나 인성발달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 어려운 환경에 처하기 쉽다. 그래서 또래 집단으로부터 소외되며 친밀함을 형성하지 못하여 완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렵다.

“어린나이에 프로가 됐는데 그 때 나한테 골프 그만두라고 했던 친구들이나 어른들한테 난 할 수 있다고 보여준 거 같아. 더구나 프로만 판 게 아니고 투어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니깐 사람들이 다가오더라.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주고 친해지니깐 내 상황을 뽀뽀하게 말하게 됐어.” -Ko의 심충면담 中-

하지만 위의 심충면담과 같이 결손가정 학생선수들은 역경 극복과정에서 타인과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아울러 확대나 개선의 변화 또한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 스스로 목표를 계획하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통하여 한 분야에서 실력을 겸비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장과정은 결손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고, 스스로 타인에게 결손에 대한 경험을 뽀뽀하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까지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결손의 경험을 말할 수 있는 이들의 자신감은 일상생활에서도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4.2 즐거움을 통한 긍정적 정서형성

결손가정 자녀들은 대부분 가정 내의 갈등 또는 가족 구성원의 해체라는 환경적인 자극으로 인하여 우울이나 불안, 불쾌, 분노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의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결손가정의 학생선수들은 부모의 결손 상황에서 겪게 된 부정적 정서를 떨쳐버리기 위하여 드라이브하기, 음악듣기, 노래 부르기, 좋아하는 드라마 시

청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즐거운 감정을 유발시키려고 했다. 즉, 결혼가정을 경험한 학생선수들은 감정의 조절을 위해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스스로 찾아 선택함으로써 부정적 정서를 긍정적 정서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일단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신나고 재미있었어. 그 순간만큼은 걱정 없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 같아. 노래 부르고 놀면 우울한 게 많이 사라졌고 노래 부르는 내 모습을 봤을 때 웃고 있더라. (중략) 신나게 뛰어 놀고 나면 뭔가 개운한 느낌이 들고 뭔가 짐 하 나를 털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 -‘Kim’의 심층면담 中-

“남자라면 차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 내가 그 때 나이가 안돼서 운전은 못하니깐 좋은 차타는 형들한테 부탁해서 노래 엄청 크게 틀고 뽐내면서 드라이브했어. (중략) 드라이브 할 때는 너무 시원하고 답답한 게 없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 기분도 좋아지고 뭔가 머릿속이 비워지는 느낌이었어.” -‘Ko’의 심층면담 中-

따라서 결혼가정 학생선수들은 역경 극복과정에서 스스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 이러한 역경 상황의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본인이 적극적인 탐색과 함께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였다. 그리고 결혼환경으로 얻게 된 부정적 정서나 스트레스를 안정적인 심리적 상태로 회복할 수 있게 자신의 힘과 의지에 의해 노력한 것을 알 수 있었다.

4.3 문제해결력의 향상

보통 결혼으로 인해 현실에 대한 적응이 어려워지고 타인과의 교제를 두려워한다거나 이와 반대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정신건강문제, 부적응 행동,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과 같은 많은 역경에도 부딪치게 된다. 이처럼 결혼가정 자녀들은 사회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문제해결력이 부족하게 된다. 하지만 역경 극복에 대한 과정을 경험한 결혼가정 학생선수들은 결혼 등으로 인한 역경 상황에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효과적인 방법의 발견과 미래의 역경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상황이 내 인생 최대의 고비였는데 이걸 통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된 것 같아.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큰 배움이었고 최고로 힘들었지만 이제는 아무리 힘든 일이 다가와도 그 때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어.” -‘Lee’의 심층면담 中-

또한, 새로운 문제에 대해 대처하고 도전하는 힘을 가지게 되었으며, 앞으로의 역경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역경과 관련한 문제 해결력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문제 상황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가능해지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 그리고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결국 역경 극복과정을 경험한 결혼가정의 학생선수들은 결혼으로 인해 발생한 역경을 통해 앞으로 어떠한 역경 문제가 발생하고 경험하더라도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5. 내러티브를 마치며

본 연구자는 결혼가정 학생선수들이 경험한 역경 극복 과정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된 많은 성장요인들을 스포츠지도자 또는 부모모들에게 제공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장요인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간의 ‘교육적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로서 교육적으로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교육적 의사소통’은 교수자가 의도한 교육목표에 학습자가 도달할 수 있게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 그들 스스로 사고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소통을 의미한다. 또한, 학교공간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서 생겨날 수 있으며, 아울러 사회 또는 그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러한 ‘교육적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자에 대한 교수자의 충분한 이해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직접 전해들은 이야기 속에서 발견한 많은 성장관련 요인들을 스포츠지도자나 부모모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결혼가정의 학생선수들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또한, ‘교육적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짐으로서 현

재 결손가정의 환경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선수들이 더 좋은, 더 나은 인격체로 성장하길 바란다.

끝으로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결손가정의 학생선수들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결손가정 이외의 다른 다양한 어려움이나 고난을 경험하는 학생선수 집단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이나 탈북자 가정, 조손 가정, 재혼 가정 등과 같이 결손가정과 비슷한 환경에 처한 또 다른 학생선수집단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2017).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Retrieved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 [2] J. Y. Lee. (2002). *A Study on the Child-rearing Attitudes of Protectors that the Children Perceive and the Children's Personality in the Broken Hom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Korea.
- [3] M. J. An. (2005). *A Comparative Study on the Difference of Gender-Role Identity and Self-Esteem between Children of Broken Homes and Those of Normal Hom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4] W. J. Park. (2007). *The Effects of Literatherapeutic Intervention on Ego Resilience and Maladaptive Behaviors in a Child of Broken Hom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 [5] C. W. Lim. (2004). *A Study on Pastoral Care for Defected Famil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shin University, Osan, Korea.
- [6] Yoo, C. J. (2004). *A Study on the Juvenile Delinquency of Defected Famil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Hanyoung University, Seoul, Korea.
- [7] H. S. Kim. (2013). *Growth of Korean Divorced Children*. Seoul: Jipmoondang.
- [8] H. R. Lee, H. K. Yu & Cho, Y. S. (2014). Developing a Group Counseling Program to Improve Career Matur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a Functionally Deficient Family.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3(1), 53-79.
- [9] Jung, H. Y., & Chun, B. G. (2010). Study on the Leisure Experience of the Broken Home Juveniles using Experience Sampling Method.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and Sciences*, 24(6), 61-83.
- [10] E. J. Jo & H. K. Lee. (2016). The Study of Adaptation to College Life in Single Parent Famil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48, 237-263.
- [11] Galli, N. & Vealey, R. S. (2008). "Bouncing back" from adversity: athletes' experiences of resilience. *The sport psychologist*, 22, 316-335, Retrieved from <https://journals.humankinetics.com/journal/tp>
- [12] T. H. Yu. (2003).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Institutional Sport Policy. *Education Policy Research*. Seoul: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13] H. G. Lee. (2010). *The Implications and the Practical Issues of Fostering the Student-Athlete Who do Stud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 [14] T. H. Yu & J. W. Yi. (2004). Schooling and the culture of school athletic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3(4), 271-282.
- [15] S. Y. Kim. (2012). *A Study on the Process of Overcoming Adversity by Women in Poverty: With a Focus on Strengths-Based Case Management Participa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 [16] S. A. Kim. (2014). *Resilience in professional baseball players : bouncing back from adversity and growt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17] H. S. Son. (2007). *Conflicts and Responses of Divorced Women in the Process of Independ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18] S. Y. Im. (2013). *The meaning reconstruction process leading to posttraumatic growth after relational lo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19] J. E. Huh. (2003). *A Study on Empowerment, Self-help Group, Networking Practice for Women Hanbumo*.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20] D. J. Clandinin & F. M. Connelly. (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Jossey-Bass, San Francisco.
- [21] H. J. Moon. (1998). *Case study of sport education curriculum model in teaching physical education at a selected secondary schoo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22] J. P. Spradley. (1980). *Participant observation*. New York: Holt, Rinehart & Wingston.
- [23] K. C. Kim (2009). A narrative inquiry on two teachers' experiences of writing process of the middle school physical education textbook.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16(2), 93-110.
- [24] J. S. Lee. (2006). *Family problems*. Paju: Gyomoon Publishers.

- [25] R. S. Vealey. (1986). Conceptualization of sport-confidence and competitive orientation: Preliminary investigation and instrument development. *Journal of Sport Psychology*, 8(3), 221-246.

신 송 휘(Hwi-Song Shin)

[정회원]



- 2016년 2월 : 한양대학교 졸업(체육학사)
- 2018년 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관심분야 : 스포츠교육학, 학생선수, 역경극복
- E-Mail : tlsthdgnl993@naver.com

김 승 용(Seung-Yong Kim)

[정회원]



- 1999년 2월 : 한양대학교 졸업(체육학사)
- 2002년 8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2008년 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졸업(체육학박사)
- 2018년 3월 ~ 현재 :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조교수
- 관심분야 : 스포츠교육학,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
- E-Mail : dragonkim@dau.ac.kr